

## 추석연휴 안전하고 냄새없는 깨끗한 축산업 만들기 운동 추진 계획 알림

- ❖ (목 적) '23년 장기 추석 연휴기간 국민 이동량 급증 전망, 축산 악취로 인한 국민의 불편 및 축산업 이미지 저하 선제 예방 필요
- ❖ (주요내용) 관계기관, 한돈협회, 양계협회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, 처리시설, 운반업자 등 축산업 관계자의 **자발적 환경 개선 독려 캠페인** 추진
  - \* 관련 포스터 배포(SNS, 축산신문, 오프라인 등), 「축산환경·소독의 날」 확대 운영 등

□ (현황) 축산악취 민원 증가\*에 따라 정부는 악취개선 정책 추진\*\*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축산악취 주요 원인인 '관리 소홀' 문제를 개선 중

\* 축산악취 민원(건) : ('18) 6,705 → ('19) 12,631 → ('20) 14,345 → ('21) 13,616

\*\*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, 주민참여 거버넌스 운영, 축산환경 개선 교육 강화 등

○ 그러나, 최근 분뇨 야적·유출, 악취, 질식 등 일부 부적정 사례 적발이 계속됨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의 가축분뇨 관리 경각심 제고 필요

□ (추진계획) 추석연휴 기간 관계기관 및 축산단체 협업 운동 추진 (9.15~10.6) 통해 축산업계의 자발적 환경 개선 의식 고양, 악취개선 확산

○ 축산농가 청결관리, 처리시설의 분뇨관리 철저, 질식사고 예방 안전수칙 등 주요 준수 사항을 **포스터화**하여 온라인 게시, 문자발송 및 인쇄물 배포(9.19~)

\* 지자체, 축산단체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축산농가 및 시설에 문자 배포, 사무실에 인쇄물 부착 안내

○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던 “**축산환경·소독의 날**”<sup>\*</sup>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전·후(9.26~27, 10.4~5)로 **특별 확대 운영**

\* 문자발송 및 현장지도·계도활동을 강화하고, 추진 실적 및 우수사례를 농식품부에 제출(지자체, 농협, 축산단체, 검역본부, 방역본부, 축산환경관리원 등 협업)

○ 부적정 분뇨처리시설에는 분뇨를 위탁처리하지 않도록 안내(한돈협회, 9.15)하고, 가축분뇨 처리시설 전수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상 **집중관리** 추진(10.16 주간~)

## 붙임 포스터 배포안



※ 홈페이지 게시 및 지자체, 농축협, 생산자단체 협업 통해 농가, 주요 시설 등에 문자메시지 및 인쇄물 공유 추진